불교TV

채널32 틀면 "안방이 법당"

3월1일부터 10시간 방송…영상포교시대 개막

지난 5일 시작된 불교텔리비전의 시험방송은 다음달 28일까지 55일간 계속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송시간은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1시간분량의 방송을 두번 연속으로 내보내고 있다. 또한 밤8시부터 10시까지도 재방송된다. 중견아나운서 이정부씨가 진행하는 시험방송은 교계소식, 찬불가, 5분설법, 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국의 명찰, 불자의 건강등 다채롭다. 정식개국 이후 방영될 프로그램들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과 정규프로그램으로 이어질 프로도 함께 방영되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의 채널은 32번. 방송지표는 '정법을 온누리에 펼치는 방송, 인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송, 사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방송, 문화를 아름답게 일구는 방송'등이다. 방송 목표는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 선도, 불교교리와 문화의 우수성 선양, 불교 전문 채널로서의 특성확보'등에 두고 있다.

이같은 방송 지표와 목표는 3월1일개국과 동시에 매일 10시간(낮:10시~15시 밤18시~23시)주당 70시간의 방송을 통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용해된다.

불교텔리비전의 방송 스튜디오는 마포구 마포동 금호전기빌딩 1층에 2백80평규모로 설립되어 있으며 방송사의 직원은 제작국 80여명을 포함 1백50여명이다. 각 프로그램에는 프로의 성격에 따라 각 분야의 유명인과 전문인이 대거 동참하게되며 자체 제작은 80%이상의 비율을 갖는다. 나머지 20%는 외화나 기존의 영상물들로 대치된다.

◇ 3월1일 개국을 앞두고 불교텔리비전이 55일간의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은 불교텔리비전 주조종실.

불교텔리비전은 기원정사, 봉향각등 9개의 스튜디오에서 편집과 제작이 시행되며 2대의 중계차와 15대의 카메라 영상혼합기(3대) 편집기(3대) 자동송출기(1세트) 비디오테잎레코더(26대) 음향혼합기(4대)등 최신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3월1일 개국 이후에는 20종류 이상의 프로그램이 불교교리, 불교문화, 바른 신행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국내의 사찰과 신행현장을 두루 찾아 다니며 신선도 높게 제작된다. 제작국은 이미 개국특집 프로그램으로 백남준 비디오쇼, 중국의 불교, 3·1운동과 불교, 북한불교의 어제와 오늘, 세계불교석학에 듣는다,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둔 상태이다.

불교텔리비전의 시청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 54개 케이블 TV 방송국중 거주지역 방송국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컨버터 설치비4만원과 보증금 3만원을 납부하면 케이블 TV 전용회선을 TV수상기에 연결해준다. 시청자는 매월 수신료1만5천원과 컨버터 임대료 2천원을 내면 불교텔리비전을 비롯한 30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불교텔리비전의 경우는 한국통신과 위성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가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임연태기자〉

이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시험방송 (매일 오전 10~12시)

·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오전 10시20분) : 교계 및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불교텔리비전의 개국을 기다리는 염원과 바램을 듣는다. ·5분설법 :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우는 큰스님들의 법문. ·한국의 명찰 : 황의수 문화재 보존협회 이사와 함께 한국의 유명사찰등을 찾아간다.

개국특집 (3월 1일~5일) ·백남준 비디오쇼(1일 낮 12시15분) :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씨의 화려하고 환상적인 비디오 쇼. ·북한불교의 어제와 오늘(1일 밤 8시) : 공산체제하에서 변천되어온 북한불교의 모습을 본다. ·특집다큐 일본속의 불교(2일~4일 오전 11시) : 일본에 영향을 준 한국불교의 모습을 현지탐방을 통해 3부작으로 알아본다.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2일~4일 밤 8시55분) : 미국 불교의 개척사와 현황을 3부작으로 방송한다.

정규프로 ·지비의 천수천안(월·화 오전 10시25분) : 어렵게 살아가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웃들을 소개한다. ·비법공개, 절음식(월~수 오전 11시50분) : 사찰음식의 보존과 보급, 대중건강의 생활화를 위한 사찰음식 공개. ·염화실 탐방(월~목 낮 12시25분) : 고승대덕을 찾아 구도 이야기와 덕담을 듣는다. ·퀴즈특급, 이뭐꼬(일요일, 오후 1시35분) : 사찰·가족 대항으로 풀어보는 교리퀴즈프로그램. ·촛점32(수, 오후 2시) : 불교계의 현안이나 불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를 선정, 토론형식으로 풀어본다.

◇ 시험방송에 들어간 부산불교방송(좌)과 광주불교방송(우) 사옥

영·호남에도 '깨침의 소리'

BBS 부산·광주지국 2월1일 개국

'깨침의 소리 나눔의 기쁨'이 지난 8일 오후4시 부산 광주지역을 성도절의 기쁨과 함께 뒤덮었다.

이날 실시된 두 지역의 불교방송 시험방송은 지역불자들에게 전파를 타고 들리는 법음의 감미로움을 안겨주었다.

부산불교방송국의 위치는 동구 범일동 보생빌딩 10층과 11층이며 가청주파수는 FM89.9MHz다. 송신출력은 3kw이며 가청지역은 부산·김해시등 인근 5개시와 양산군등 8개 시군 일원이다. 방송국측은 이지역 1백20만가구 이상이 불교방송을 청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불교방송의 위치는 북구 임동 78-2번지 자체사옥이며 가청 주파수는 FM89.7MHz이다.

송신출력은 부산과 같은 3kw이며 가청지역은 광주시 등 18개 시군전역과 김제군 등 17개 시군일원으로 60여만 가구가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지역의 지국 설립은 각각 30여억원의 설비투자로 이루어졌으며 PD, 아나운서, 기술, 총무직에 20여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 시험방송과 개국 준비를 위해 서울 본사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이와관련 서울의 PD와 아나운서 기술직 사원들이 파견형태로 두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미 진영종 PD와 전승환 PD를 부산과 광주로 발령했다. 또 지역 자체에서도 수습사원과 경력 기술직 사원등을 채용했다.

시험방송은 개국 하루전인 이달 31일까지 실시된다. 방송시간은 매일 아침9시부터 12시까지이며 23일부터는 오후6~7시까지 1시간 연장 방송할 계획이다. 시험방송 기간내의 주요 프로그램은 방송개시음악과 종정 월하스님의 법어, 김태호사장의 인사말에 이은 아침예불을 시작으로 찬불가, 법구경, 음악프로그램,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불교의 명시, 종료음악 등으로 이어진다.

23일부터 추가되는 시간에는 저녁예불과 음악, 교리좌등이 방송된다. 음악시간중에는 정규방송의 프로그램들도 상세히 소개된다.

불교방송은 이 두 지역의 방송자체 제작율을 10%내외(2시간)로 책정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개국이후에는 서울의 방송프로그램이 전용회선을 통해 동시 방송된다. 부산과 광주 불교방송은 개국이후에도 꾸준한 불자들의 동참과 성원을 기다리고 있다.〈부산:(051)7644-5114, 광주(062)520-1114

화면앞 불자들 환호의 박수

시청소감

불교TV가 첫 영상을 내보던 날 불교TV에는 환희에 감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는 불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듯 했다.

불교TV의 시험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젊은 불자 김숙이씨(25)는 "신림동 집에 전송망 설치가 미처되지 못한 관계로 종합유선방송협회에서 시청했다"고 전하면서 "30여개의 케이블TV를 동시에 시청 가능한 협회에서 TV를 시청하면서 나는 자신했다. 다른 어떤 채널에도 뒤지지 않는 방송으로 가히 다채널시대를 선두해 나갈만 하다고."이어 김씨는 "젊은 불자들도 함께 호흡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며 불교TV를 통한 불교활성화에 커다란 기대를 보였다.

또 부산 북구 주례에 살고 있는 송인재(39), 이숙향(37) 부부는 "절에 가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법을 인식했던 저희 부부에게 불교TV는 가까이에 있는 인도자로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면서 "1월5일 첫 시험방송날 방영된 성철스님의 다비식 장면은 다시 한번 삶의 자세를 추스리게 했다. 앞으로 불교TV의 영상과 말씀을 통해 인간다운 세상, 법열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적 세계화'

목탁소리

이경숙 〈취재1부 차장〉

「세계화」란 말이 지난 연말부터 넘쳐흐르고 있다. 아마 연말에 한 해 최대 유행어를 집계해보면 「세계화」가 첫번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해에 한참 떠돈 「국제화」와 어떻게 다른지, 「세계화」란 말에 이젠 익숙해졌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할 지 개념정립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다.

아무튼 21세기를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지구촌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경제분야의 경쟁력을 가속화시켜 세계일류국가로 부상하자는 것이 주 골자인 것 같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무한 경쟁시대에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를 아침 저녁으로 듣다보니 저절로 숨이 가빠진다.

이제 깃발을 든 대통령의 뒤를 따라 모든 국민들이 전후좌우 돌아볼 새 없이 뛰어가면 되는 걸까.

「세계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는 지적이 벌써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세계화를 향해 냅다 달음박질칠 만큼 기초체력은 충분한가 한번 돌아볼 일이다.

우리 말의 존대말 쓰는것조차 제대로 모르는 네살바기이 아이에게 시키는 영어조기교육 바람, 우리의 국악기 이름조차 모르면서 피아노, 바이올린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필수가 되어 있는 풍조, 김치·된장 못 먹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과 반비례로 피자, 햄버거 장사는 날로 번창, 우리나라에 집심굶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전국에 5만명이나 되는 사실과 임금착취등 인간적인 대접을 못받고 있는 수천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정에는 무관심하면서 외국 난민에게는 관심을 보이는 아이러니, 술 소비·교통사고 세계 1위… 우리의 전통·문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확고히 한 후에 세계와의 조화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새삼 떠오르는 요즘이다.

"정법의 메아리에 가슴벅차"

청취소감

BBS부산·광주불교방송국의 시험방송이 첫 전파를 타면서 지방국 개국을 고대해 오던 영호남권 불자들은 불교방송의 네트워크시대를 실감했다.

부산 대연4동에 사는 양대법각(55) 보살은 "10년동안 발원해 오던 불교방송을 부산에서도 들을 수 있다니 꿈만 같다"며 "불교방송은 기복에 치우치기 쉬운 불자들을 충분히 정법의 세계로 이끌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성공적인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월 개국의 본방송때에도 무난히 잘 해나갈 것 같다. 사실 바람 잦았던 부산지국 개국의 행로에 걱정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제는 안심이다. 불교방송을 통해 고승의 명상의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부하는 불자의 모습으로 영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사는 조주연씨(65)는 "얼악하기만한 호남지역의 불교문화에 불교방송국의 개국은 정체된 호남불교에 활기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시험방송을 계기로 의심을 없애고 깨침을 이룰 수 있었음 한다. 그리고 하나되는 불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시험방송의 청취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은 과학입니다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돌침대〈파워스톤〉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찜질기 입니다.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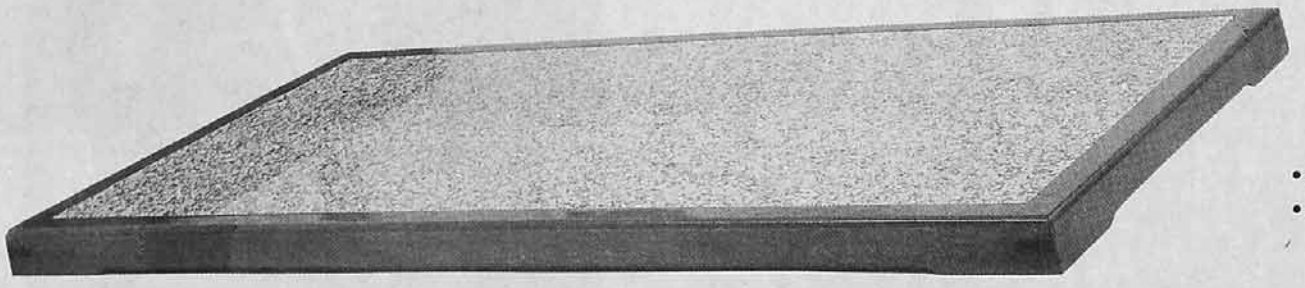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삭 파워스톤은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효과로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불면증·교통사고후유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규격〉: ·200×104×8
·200×138×80

·실용신안특허 : 제068614호
·상표등록 : 제245216호

판매원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삭産業株式會社

※전기용품 Q마크획득·전자파 장해 시험필

품질보증

전자파장해시험필 EMI 공업진흥청